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ASCENDANT SERIES

가제 : 승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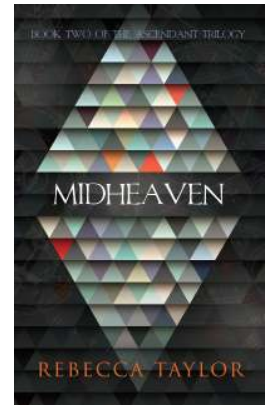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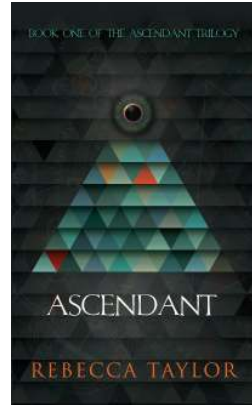
저자 : Rebecca Taylor

출판사: Ophelia House

발행일: 2015년 3월 30일(1권)/2015년 6월 16일(2권)

분량 : 452 페이지(1권)/424페이지(2권)

장르 : YA 소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엄마,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생사조차 모르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원망하던 샬롯은 뜻밖의 사건으로 잉글랜드에 보내진다. 그런데 엄마의 고향집에서 발견한 과거 흔적들에서 샬롯은 어쩌면 다시 엄마를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얻는다. 지상이 아닌 다른 공간, 그 미스터리한 세계가 샬롯의 눈 앞에 등장한다.

1권. 하늘로 (Ascendant)

샬롯은 겨우 열두 살에 엄마를 잃었다. 홀연히 사라져버린 엄마는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을 해 오지 않았고 죽었다는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하염없는 기다림은 이어지고, 어느덧 열여섯 살이 된 샬롯은 타고난 총명함을 일부러 아닌 척 누르면서 온갖 말썽이나 피워대는 고등학생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자료 조사를 해오라는 과제가 주어지자 샬롯은 얼마든지 해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남이 해놓은 과제를 찾아 되는대로 베껴서 내버린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곧바로 아버지를 호출하지만, 그냥 한 번 혼나고 넘어갈 줄 알았던 그 일에서 그토록 엄청난 결과가 빚어질 줄 누가 알았으랴.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인사인 아버지는 학부모 상담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참석하고, 결국 샬롯을 제대로 부양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이 일로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당장 알코올 중독 치료시설로 들어가게 된 아버지 대신 샬롯을 돌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지만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마음대로 그럴 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샬롯은 외삼촌이 계시다는 머나먼 잉글랜드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9년 전, 아주 어릴 때 엄마와 함께 놀러 온 이후로는 다시 온 적이 없는 그곳, 엄마가 태어나

고 자란 집에서 샬롯은 그리운 엄마의 젊은 시절 흔적들을 하나하나 발견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물건도 나타났다. 돌로 만든 퍼즐 상자인데, 그 안에는 별 모양 목걸이와 엄마가 직접 작성한 메모가 담겨 있었다... 의문의 퍼즐 상자, 암호가 가득한 엄마의 옛날 일기, 샬롯은 이 두 가지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내면 왠지 엄마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는다. 가족들이 감추고 살아온 과거, 숨겨진 역사, 그리고 샬롯을 향해 사랑을 키워가는 두 남자의 미묘한 삼각관계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2권. 하늘 한가운데로 (Midheaven)

영국에서 다시 돌아온 지도 10개월째, 샬롯은 누군가가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마음대로 컴퓨터를 할 수도 없고, 전화 통화나 메시지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가 없다. 전자기기나 통신수단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편집증을 일으킬 것만 같은 이 불안감을 만든 사람은 바로 에머릭. 샬롯이 얼마 전 삼촌의 저택에서 알아낸 엄청난 가족의 비밀을 캐내려는 인물이다.

지금껏 당연히 아빠라고 생각한 사람이 친 아빠가 아니고, 생물학적인 친아버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만으로도 샬롯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비범한 인물의 딸로 태어난 자신이 선택된 존재이며, 인류에게 연금술을 반드시 전하고 가르쳐주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믿기 힘든 사실도 밝혀졌다. 샬롯의 뒤를 캐기 시작한 에머릭은 샬롯이 가족들의 비밀을 어디까지 알고 있으며 샬롯이 이 세상에 전달해야 할 '연금술'의 비밀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 또 그 임무를 맡을 생각인지 알고 싶어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 집착에 가까운 관심을 쏟아 붓는지 정확한 의도는 알 수도 없다. 샬롯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은 알아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었다. 에머릭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학교 컴퓨터로 열심히 검색에 검색을 거듭했지만 연금술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알아낸 것이 없다...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비밀을 인류에게 전달하라는 지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생부가 남긴 돌 상자, 엄마가 남긴 열쇠, 이 두 가지만이 샬롯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에머릭이 먼저 알아내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총 세 권으로 구성된 시리즈로, 마지막 편인 'Descendant'는 2017년에 발표될 예정이다.

<저자 소개>

레베카 테일러(Rebecca Taylor)는 위 시리즈의 1편 『Ascendant』로 2014년 '콜로라도 도서상'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 그 외 작품으로는 『THE EXQUISITE AND IMMACULATE GRACE OF CARMEN ESPINOZA』 등이 있다.

제목 : CLARA HUMBLE AND THE NOT-SO-SUPER POWERS

가제 : 클라라 험블의 허술한 슈퍼파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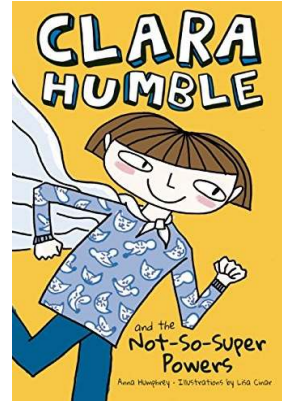
저자 : Anna Humphrey

출판사: Owlkids Books

발행일: 2016년 9월 13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숨기고 싶었지만 자꾸만 드러나는 슈퍼영웅의 능력, 정의를 지키러 나선 꼬마 영웅 클라라

엄마아빠가 목소리를 잔뜩 낮춰서 나누는 대화도 다 엿들 수 있다면? 집에서 키우는 친칠라 고양이와 남모르는 소통이 가능하다면? 액체는 무조건 쏟아버리는 능력을 타고났다면? 초등학교 4학년 클라라는 자신이 이 놀라운 재주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되도록 조용히 살고 싶지만, 세상은 영웅을 가만두지 않는 법. 클라라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던 이 특별한 ‘슈퍼파워’를 전부 다 발휘하도록 만드는 기막힌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다.

시작은 블링크스톤 공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된 지역 초등학교들의 달리기 시합이었다. 클라라가 다니는 클레드힐 초등학교와 매년 막상막하 대결을 펼치는 라이벌, 레지널드 초등학교를 비롯해 클리슨 시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가 한 자리에 모이는 큰 행사였다. 운동장에 모여든 아이들은 저마다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푸느라 여념이 없지만, 클라라는 여유만만하게 최근 새로 그리기 시작한 만화를 수정하느라 바빴다. 100미터 선수로 출전할 예정이지만 타고난 달리기 실력이 워낙 출중해서 별로 준비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레지널드 초등학교의 100미터 대표 선수로 나올 클라라의 라이벌, 베키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 평화로움은 다 깨뜨렸다.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베키는 다짜고짜 클라라가 싸운 점심 도시락을 보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하필 아빠는 이 중요한 날에 집에 남는 빈 병이 없었던지, 설사약이 담겨 있던 물약 병에다 음료수를 담아줬는데 그 병을 본 베키는 왜 점심으로 설사약을 먹냐며 깔깔대며 놀려대고, 이런 걸 먹고 제대로 달릴 수 있겠냐고 비웃기까지 했다! 클라라는 꼭 참아보려고 했지만, 베키가 신고 있는 번쩍이는 은색 운동화를 보니 불안감을 숨길 수가 없었다. 베키의 아빠가 런던에서 공수해온 그 운동화는 ‘이탈리아산 진짜 가죽’으로 만든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클라라는 그까짓 신발 때문에 기죽지 않으리라 애써 결심하지만, 베키는 또 한 번 시비를 건다. 클라라가 다니는 학교의 마스코트인 악어를 보고 우습다고 놀려대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참다 못한 클라라가 베키네 학교 마스코트인 너구리가 더 못생겼다고 한껏 비웃어주자 둘 사이에서 한바탕 말싸움이 벌어지고, 급기야 양쪽 학교의 마스코트들 끼리 댄스 대결을 벌이기로 한다. 학교 대 학교의 자존심을 건 전쟁으로 번지고 만 것이다…

예의 없이 덤비는 라이벌, 부당하게 집을 떠나야 하는 이웃, 클라라가 해결사로 나섰다

달리기 시합을 뒤로하고 장내를 온통 소란스럽게 만든 두 마스코트의 댄스 대결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었다. 클라라가 ‘슈퍼파워’를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베키가 사람들이 안 보는 사이에 악어 마스코트를 일부러 밀어서 쓰러트리는 장면을 본 순간, 클라라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 심장이 쿵쿵 빨리 뛰고, 피가 펄펄 끓듯이 뜨거워지더니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마치 전기라도 통하는 듯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목 뒤에 털까지 바짝 곤두섰다! 그리고 클라라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로 베키를 향해 고향을 질렀다. “넌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두고 봐,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클라라는 아빠가 설사약 병에 담아준 음료수를 베키의 최고급 운동화 위에 칼칼 부어버렸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다.

스스로를 평범한 아이들과 다른 슈퍼영웅이라고 철저히 믿는 초등학교 클라라는 이제부터 이 특별한 능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바로잡아야 할 모든 일들을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마음만 먹으면 선생님의 마음도 조종할 수 있고,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웃이던 모모 할아버지가 머나먼 요양원에 떠밀리듯 가야만 하는 일도 다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 만화 그리기가 취미인 주인공 클라라의 귀여운 그림도 페이지마다 등장하여 재미를 더하고, 엉뚱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고 말겠다는 진지한 다짐이 미소를 자아낸다.

<저자 소개>

앤 험프리(Ann Humphrey)는 10대 시절부터 소설가를 꿈꾸다가 데뷔 소설 『Mission (Un)Popular』를 발표하면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다. 이후 『Ruby Goldberg’s Bright Idea』 등을 발표했다.